

제 62 호

서기 1998년(단기433년)10월 20일(화요일)발행
 서기 197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0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02)243-1073



發行人: 金相勳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 特別市 東大門區 徽慶1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244-3717. fax: (0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時享日程表

先 祖 位	享 祀 日	曜 日	墓(壇) 奉 安 所
忠烈公諱方慶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之壇	十一月二十七日 陰十月九日午前九時	金	慶北安東市祿轉面竹松里 慶北安東市豐山邑檜谷洞
文英公諱恂	十一月二十五日 陰十月七日	水	京畿道安養市東安區冠陽洞後山
文肅公諱永暉 上洛伯公諱續 提學公諱益達	十一月二十四日 陰十月六日	火	忠南天安市並川面佳田里
貞簡公諱永煦 領三司事公諱猷 按廉使公諱士廉	十一月二十三日 陰十月五日	月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亭里
掌令公諱玖 典書公諱成牧	十一月二十六日 陰十月初十日	木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密直司使公諱七祐	十一月一日	日	京畿道抱川郡東面社稷里
開城尹公諱七霖	十月十一日	日	京畿道廣州郡草月面池月里
文溫公諱九容	十一月十九日 陰十月一日	木	京畿道抱川郡倉水面伍佳里
都評議公諱九鼎	十一月二十二日 陰十月四日	日	慶北義城郡義城邑杏峴里
翼元公諱士衡	十一月二十七日 陰十月九日	木	京畿道楊平郡楊西面木旺里
掌令公諱莚 書雲觀正公諱綏	十一月十九日 陰十月一日	木	京畿道儀旺市浦一洞廣谷里
安靖公諱九德	十一月二十二日 陰十月四日	日	京畿道驪州郡南面元承里
副使公諱天順	十二月四日 陰十月十六日	金	忠南洪城郡銀河面大川里
判書公諱愼 大提學公諱承用 評理公諱厚 郡事公諱七陽	陰三月十六日		全南康津郡鶴川面土馬里 南山

周知事項

忠烈公 時享은 陰十月 九日(陽十一月二十七日) 九時부터 올린後、待機시킨 버스로 檜谷洞에 가서 할머님 時享을 올리고、中食後 그 버스로 安東驛에 午後二時三十分까지 到着하여 歸家길에 오르도록 從來 二일에 걸친 時享을 하루로 短縮하여 數年 전부터 繼續 奉行하오니 全國 宗親께서는 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追而...京鄉各地에서 時享에 參席하는 祭官들은 陵洞齋室에 備置한 「到記」에 心히 記名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명부(花樹錄) 발간에 즈음하여

전국 종친께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 즉 아이엠에프의 경제난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 와서 종친 제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종친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지혜로 경제난을 극복하시고 인내로서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심은 물론 건경하시고 가정에 영광이 거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종회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종친들의 끊임없는 협력으로 명문대가의 자긍심을 되살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한치도 부끄럼 없는 유산을 물려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보다 좀더 폭 넓은 종사를 전개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회원명부(花樹錄) 발간을 이미 착수하여 수단을 받고 있으며,
 둘째는, 중시조이신 충렬공 諱 方 慶자의 전기 발간을 수년 전부터 숙원하던 차에 이번에 서울대학교 차 宰 佑교수 연구팀에 충렬공 할아버지

기 원고를 의뢰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전기가 발간되어 많은 후손들이 습득하여 할아버지의 훌륭한 업적이 널리 알려지리라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 안동김씨의 삼강록 번역본과 증보판을 발간하는 일인데, 삼강록은 충효열전으로 선조님들의 행장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서 우리 문중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원만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친들의 끊임없는 협력이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6일, 연기대첩(燕岐大捷)의 승장이신 號 萬戶 諱 忻 할아버지의 사적비 제막식 날 행사를 마치고 이사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대종회 발전을 위한 사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생(平生) 회비제를 결의하고 1인당 20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평생 동안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후 회비에 공고하였으나 아직도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할 일



會長 相勳

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 대종회 재정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해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하려면 종친개인의 어려운 사정도 많으시겠지만 활연(豁然)한 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야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는 바를 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아낌없는 협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고 많지만 이만 주리고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일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98. 3. 24~10. 12)

- 翼元公派: 수주, 동수, 용신, 재택, 태진, 경중, 윤희, 정중, 제한, 철희, 창대, 영덕, 중식, 동은, 원영, 달수, 수인, 현식, 현철
 - 按廉使公派: 정희, 태영, 재준, 기호, 진희, 태은, 성학, 태성, 사순, 사관, 사운, 영수, 선진, 태영, 재관, 선진, 선희
 - 文溫公派: 종희, 재희, 학묵, 철희, 정희, 재희
 - 大護軍公派: 태근
 - 正儀公派: 수일, 성만, 태술, 태인, 태일, 태건, 태옥, 태운, 창식, 종희
 - 典書公派: 광주, 태호
 - 提學公派: 홍열, 명식, 향용, 재철, 규영
 - 都評議公派: 춘식, 찬희
 - 郡事公派: 재근, 진희, 삼용, 재영, 규희, 재각, 태영
 - 密直司使公派: 종묵, 재근, 재소
 - 派未詳: 현희, 희대, 용득, 한준, 예묵, 영복, 재민, 원묵, 재중, 호권, 인희, 재주, 원출, 원선, 이희, 재하, 석배, 현묵, 태순, 재옥, 재우, 영득, 상태, 재선, 남응, 용득
- 計 1,736,000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98. 5. 2 정기총회시)

翼元公派: 광각, 중화, 풍일, 준철, 흥목, 병목, 재현, 용욱 재용, 상목, 수주, 수흥, 수완, 효식, 영돈, 근식, 재기, 처회, 원희, 영준, 찬희, 태철, 태영, 재현, 전희, 태훈, 준희, 영수, 정희, 철희, 재구, 남식, 철희, 봉수, 영용, 재철, 용세, 부식, 명일, 창식, 장희, 영식, 선희, 태규, 준필, 현목, 의목, 명희, 찬희, 재식, 수백, 만고, 윤희, 재원

按廉使公派: 용식, 재은, 성희, 호식, 재원, 재황, 사득, 태희, 재환, 태운, 사홍, 재주, 장희, 영준, 문경, 영수, 국보, 주희, 중기, 선희, 윤식, 창희, 재홍, 재균, 재택, 노진, 재희, 강목, 영화, 영민, 태인, 태호, 성희, 도연 재국 태준 창희, 태훈, 태승, 회운, 진희, 재익, 재명, 정희, 태호, 용진, 수만, 태훈, 응식, 태호, 중수, 태수, 호렬, 연태, 한목, 관희, 태은

提學公派: 태성, 태익, 태영, 창규, 상국, 규태, 태한, 규성, 규보, 용두, 상철, 학응, 규형, 득영, 태옥, 상희, 태경, 상호, 태홍, 상옥, 재기, 두응, 상기, 규현, 상천, 태영

郡事公派: 재용, 성목, 성운, 재홍, 인희, 경희, 용목, 세목, 재명, 재근, 재철, 세용, 재수, 유목, 재운 정목, 재석, 장원용, 태옥

典書公派: 현교, 용우, 용석, 일교, 주식, 용교, 재철, 성희, 중문, 재석, 재문
文溫公派: 상문, 태옥, 영국, 재근, 재복, 창희, 영광

大護軍公派: 돈희, 중희, 성수, 태식, 운희, 병희, 상희, 중식
副使公派: 재선, 인희, 재은, 한석, 재영

開城尹公派: 태복, 봉래, 상국

正儀公派: 태응, 인희, 태호

都評議公派: 재권, 성수

判三司公派: 덕운, 봉선

密直司使公派: 태운, 재영, 준희, 덕목, 용화, 용일

安靖公派: 선호

書雲觀正公派: 규민

計 206명 × 20,000원 = 4,120,000

제31회 정기총회시 찬조자 명단

(98. 5. 2)

三十萬원: 중재(按)

十萬원: 도연(按), 안림사공파 회장 장희, 익원공파 회장 찬희, 서운관정공파 회장 돈영, 대호군공파, 괴산중친회, 대구중친회, 사천문중

五萬원: 청주중친회 회장 규성, 제학공 중중, 익원공고창중중, 밀직사공 회장 덕목, 영돈(翼), 태호(正), 상천(提), 덕운(判), 창식(翼) 수백(翼) 영국(文), 원구(翼), 재철

三萬원: 용세(翼), 태규(翼), 용화(密), 윤식(按), 학응(提), 장열(副), 영준(翼), 창희(翼), 영수(翼), 세용(郡)

計 2,025,000

贊助者 名單

(98. 3. 24~10. 12)

五拾萬원: 在日 安東金氏 宗親會

十萬원: 강릉중중(충렬공묘소 참배시) 중북 영동 황간 중친회, 길성(翼), 홍식(按)

五萬원: 철호(提), 명환, 세용(翼), 영용, 승희, 석찬, 옥천제학공 이원중친회, 동희, 용희, 시목(密), 창희(正) 무명1

四萬원: 경희

參萬원: 봉민, 인목(按), 창식(副), 재호(翼), 홍철(副), 영옥, 재영(副), 재봉(翼), 명희, 용세, 선룡, 원희(郡)

計 1,850,000

충렬공 698주기 추모제시 贊助金

(98. 8. 16(음))

會長 相勳	200,000
泰亨	100,000
익원공중회	50,000
尙默	30,000
計	380,000(원)

평생회비

貳拾萬원: 회운(都)

※ 贊助金과 通商會費를 納付해 주신 宗親諸位께 感謝드립니다.

白凡 金九先生 輓章



이 輓章은 白凡 金九 先生 逝去時 臺灣의 蔣介石 總統이 보내온 輓章을 金滿吉 賢宗이 보내주어 중보에 게재함. 편집자 주.

蕭蕭落木動秋風
今日哭君噫不窮
權域民人賴誰活
謳歌善政不忘中
樞星一夜落東城
天慟地悲水自鳴
別淚津津滄海溢
憤心疊疊泰山輕
堂堂大義生前業
烈烈精神死後名
千秋冤恨憑誰問
寂寞荒陵白日月

가을 바람에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대가 황천으로 떠나다니 슬픈마음 한이 없네
한국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여 살란 말이오
그대의 착한 정사만을 잊지 못하고 있던 중인데
동녘성의 큰별이 하룻밤 사이에 떨어지니
하늘과 땅이 슬퍼하니 애통하여 물도 스스로 목매어 운다.
이별의 눈물이 건건하여 창해에 넘치니
분한 마음 쌓이고 쌓여 태산도 오허려 가볍네
생전에 하시던 일은 대의가 당당하고
열열한 정신은 가신 후에 더욱 이름이 높네
천추에 원한을 그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적막하고 거치른 무덤에는 햇빛만이 밝도다.

安東金氏 數百年 世居阡



副會長 斗會

京畿道 利川市 栗面 本竹里는 우리 安東金氏 按廉使公派 門中の 集姓村 이다. 이 곳에 우리 안동김씨가 정착하게 된 것은 忠烈公 玄孫 按廉使公 諱士廉의 7代孫인 諱澍 光國功臣 花山君의 葬儀를 驪州郡 興川面歸白里에 모시고 利川市 栗面 本竹里에 不祧之位를 命받아 祠堂을 建堅함으로 이 때부터 우리 안동김씨의 世居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花山君 諱澍의 行狀을 約記해 본다.

公의 字는 應林이요, 號는 寓菴이니 按廉使公의 七代孫이요, 安原君(諱 公亮)의 셋째 아드님이다. 配位는 貞夫人 全州李氏, 公은 西紀 1512年(中宗 7年 壬申)에 出生, 1531年(中宗 26年 辛卯)에 進士가 되시고, 1530年에 別試文科에 壯元及第하여 賜暇讀書와 內外職을 歷任후 大司憲 副提學 松都留守 全羅道 黃海道 兩道 監司를 거쳐 文衡으로 薦學되었고 또, 漢城左右尹 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參判과 兩館提學을 지내셨다. 1563年(明宗 18年 癸亥)에 宗系辨誣使로 明나라 燕京에 가셔서 사명을 마치시고 1563年 9月 17日 燕館에서 世上을 떠나시니 享年 52歲라, 明나라 皇帝가 棺과 壽의(喪)를 特賜하여 書狀官 李陽元으로 하여금 殮(殮)과 護喪을 치르게 하였다. 是年에 明나라 皇帝가 禮曹判書에 兩館大提學을 追贈하고 我朝 宣朝庚寅年(1590年 宣祖 23)에 光國功臣에 花山君을 封하고 不祧之位를 命하고 文端이란 諡號를 내렸다. 公은 풍채가 장엄하시고 도량이 넓으시고 文章과 道德이 뛰어나셔서 그 이름을 世上에

널리 떨치셨다. 이렇듯 公明하신고로 公의 玄孫代에 이르러 一室四孝가 배출 하였으니 諱 銑(官은 贈通德郎 司憲府持平)과 銑의 弟 諱 錫(宋尤庵 時烈門下 四山監役不仕 通訓大夫 司憲府持平)과 그의 妹氏(當時十歲)等 四男妹가 그의 어머니께서 病患이 위독 하시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입에 넣으시니 병환이 소생하여 七日間을 더 연명케 하여 그 효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서기 1753年(英祖 癸酉)에 朝廷에서 贈職을하고 英祖大王께서 親筆로 一室四孝라고 써서 賜額 旌閭를 내리셨다. 그 旌閭가 폐허된 瓦家앞에 保存되어 있으며 一室四孝라 쓴 英祖의 親筆懸板은 宗孫인 22代孫 起鎬氏가 保管하고 있다.

花山君의 享祀는 年 春秋二回(春: 寒食日, 秋: 秋夕日)에 配享하고 있으며 花山君의 文集으로는 寓菴集 三卷으로 天地人이 있는데 支派 後孫인 按廉使公의 19代孫 文演氏가 所藏하고 있다.

요즈음 後孫들이 公의 遺蹟을 永久히 保存키 위하여 驪州郡 公報室에 資料一切를 갖추어 地方文化財로 上伸을 하고있다.

松栢 元會 賢宗의 善行



여기 소개하는 元會 賢宗은 忠烈公 玄孫 郡事公 諱 七陽의 20代孫이며, 郡事公 8代孫 洗馬公 諱 堪의 宗孫으로 宗家를 지켜오며 있어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어 오신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宗事에는 물론 奉祭祀를 받들며있어 한치도 소홀함이 없으며 일가친척과 돈목을 지켜 오신 남달리 친근히 함으로 宗親들의 화합을 잘 이루어내어 宗孫의 책무를 원만히 다하는 가운데 요즈음 경제난 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獻誠하여 鄉祖 이신 洗馬公 墓域淨化事業을 훌륭히 마치었고, 洗馬公 宗會의 財務理事의 重責을 다년간 맡아 충실히 직무를 다 하여 宗會에서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派宗會 消息

지난 폭우 때에 개성운공파 파조의 단소묘역이 사태로 많은 손상을 입어 중친 모두가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던 중 지난 9月 日 鳳來會長을 비롯 派宗會 顧問 尙緯氏 相國氏 그 외 여러 任員들과 子孫들이 合心하여 復元 工事を 함에 있어 總務인 泰福氏는 物心兩面으로 勞苦함은 勿論 몸소 事役을 다 하여 훌륭히 復元工事を 마친 후 英靈의 是安을 告由하고 모두들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오는 10月 11日을 時祭날로 定하고 용산역 광장에서 午前 10시에 차편으로 많은 자손들을 時祭에 參席케 한다며 모두들 흐뭇해 하였다.

宗親 消息

賢植宗親 工學博士 學位取得



忠烈公 26代孫 翼元公 22代孫 賢植. 위 宗親은 부산동인고등학교를 거쳐 京南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사 과정을 이수하고 동대학 석사과정을 거쳐 1998년 8월 동대학 대학원 무기재료 공학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 축하를 드립니다.

華燭

在日宗親 都評議公派 泰昇賢宗의 長男 吉相君의 結婚式을 98년 10월 3日 日本都호텔에서 거행하였다.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

25회 한국보훈대상 시상

지난 98년 6월 18일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에서 후원한 제 25회 한국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문중의 장한 수상자가 있었다. 이날 수상을 받은 宗親은 郡事公 20대손 낙향조 察訪公 諱堪의 12代孫인 俊會(一名碩浩)賢宗이다.

이는 월남전에서 눈과 척추 부상을 입고 소령으로 전역하여 장애의 몸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성공 지역사회의 발전과 불우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왔으며 77년 서울에서 핸드백과 장갑을 수출하는 사업에 손을 댔다가 경험부족과 戰場에서 얻은 상처까지 악화하는 바람에 퇴직금까지 모두 날리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79년 화물운송업체인 한국통운공사를 설립하여 재기했다. 값바느질 화장품 외판원을 마다하지 않은 婦人 高女史의 내조도 큰 힘이 되어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감으로 그는 이것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나를 밀어 주고 협력해 준 모든 분들의 것



俊會

이라며 동료 상이군인들의 자립을 돕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김계 상이군인회를 통해 알게 된 결손가정 청소년 4명에게 매월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보내 주고 있으며, 2,400여 평의 과수원을 운영 국가 유공자와 자녀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한다. 이렇게 봉사의 정신으로 義와 情을 듬뿍 나누며 살아오거늘 어찌 禮上을 모르리오, 1996년 가을 忠烈公의 長子 諱宣 以下 4代의 墓所 淨化事業과 郡事公 8代孫 察訪公 墓所淨化事業, 그 외 小宗事에도 많은 協贊을 아끼지 않은 崇祖精神이 투철한 宗親으로 이에 祝賀와 아울러 感謝하는 마음으로 宗報에 掲載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제시 지회장 全北 金堤 竹山面 竹山里 851의 6

按廉使公 7代孫 澍 祠堂建立



泰相

본래 花山君의 祠堂은 利川市栗面 本竹里後山 現位置에 保存되어 왔으나 不幸히도 6·25事變으로 因하여 管理가 소홀하여 完全 廢墟가 되어 復元하기엔 束手無策으로 별다른 方法이 없었다. 事變後 生計마저 어려운 形便에 祠堂復元問題는 도저히 不可能하였다. 小宗中에서는 復元件에 대하여 論議를 계속 해 왔으며 復元해야 한다는 뜻은 異口同聲으로 一致하였으나 小宗中에는 財政이 없었으며 서

로 만나면 걱정만 하고 있던 중 마침내 故鄉을 떠났던 按廉使公 21代孫 泰相 賢宗(現 安城畜協專務)께서 母親께서 늘 祠堂復元을 말씀하심이 여러 차례이어서 어머니(慶州金氏)생전에 소원을 풀어 드리고자, 巨額을 선뜻 獻誠함으로 엄두도 못냈던 祠堂復元工事を 시작함으로 諸宗의 기쁨이 충만하여 그 후 工事は 順調롭게 進行되었다. 工事を 着工한 후 泰相 宗親은 公務에도 바쁜 가운데 直接 工事を 指揮監督하고 休日이던 子孫까지 動員하여 일을 도움으로 마침내 훌륭한 祠堂을 竣工하여 英靈의 位牌를 奉安하고 永世是安을 告由하니 온 문중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門中에서는 泰相賢宗의 功勞를 높이 讚揚하여 表彰牌를 授與하였다.



中始祖 忠烈公 698周忌 追慕祭奉享

지난 10월 6일(음 8월 16일) 정오에 대중회회관에서 중시조이신 충렬공 할아버님 제 698주기 추모제를 다수의 후손들이 參詣하여 엄숙히 奉享하였다. 追慕祭로 대중회 相勳 회장님께서 헌작하시고 아현관에 명예회장이신 泰亨회장님이, 중현관은 文溫公派 고문이신 喆會 玄宗께서 헌작 하



였다. 삼현관의 참석하신 종친은 다음과 같다.

副會長 容學, 總務部長 命會, 翼元公派 榮俊, 在億, 仁鍾, 尚默, 興會, 按廉使公派 泰雲이다.

그 부모가 아니시면
이몸 어찌 생육하라
부모에게 당(當)한 일은
지성(至誠)으로 다하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천지신명(神明) 감동하사
은연중에 도우시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인신공노(人神共怒) 미워하여
자식에게 받느니라
천지이치 보복지리(報復之理)
없는 것이 아니로다
부모 은공 알량이면
자식 낳아 길러 보라
알뜰하고 살뜰한 정(情)
부모 마음 일반이라
그 마음을 생각한들
부모 은공 잇을손가
깊고깊은 부모 은공
어찌하면 다 갚으랴
만약 병환 나시거든
근심으로 시탕(侍湯) 하되
부모 병에 찾는 의생(醫生)
노소 귀천 불계(不計)하고
비록 초면(初面)일지라도
공손하게 절하여라
그 의생(醫生)을 위함인가
내부모를 위함이라
병환치료 받들적에
웃과 띠를 풀지 말고
지성(至誠)으로 다한 마음
천지신명 감응하사
물약자효(勿藥自效) 나오시리
그만하면 경사(慶事)로다
슬프도다 세월이여
무정세월 여류(如流)하여

당상학발(堂上鶴髮) 늙은 부모
백세향수(百歲享壽) 마치시면
효도할 곳 없으리라
이제 효도 못하며는
평생 한이 되리로다
호천망극(昊天罔極) 애통하며
반호벽용(攀號擗踊) 불러본들
한번 가면 못오는 길
가신 부모 또 오시랴
인생 백년 잠깐이라
등화(燈火)같이 덧없도다
혼승백강(魂升魄降) 흩어지니
남으신게 체백(體魄)이라
초종성복(初終成服) 응급(應急)하되
잃은 정신 수습하여
의금 관곽염습제구
(衣衾棺槨殮襲諸具)
극진하게 갖출적에
분수 넘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며
옛성현의 예법대로
칭가사세(稱家事勢) 형편 따라
유감 없이 갖추어서
제전등절(祭奠等節) 정결하게
지성지효(至誠至孝) 받들어라
부모 안장(父母安葬) 경영할제
선영국내(先塋局內) 향양(向陽)의 땅
백골 안향(魄骨安享) 터를 보아
후례 심장(厚禮深葬) 받들적에
풍수가(風水家) 지남지북(指南指北)
부귀공명 허탄(虛誕)한 말
전혀 고혹 하지 마라
부모 백골(魄骨) 가지고서
길흉화복 구하는 게
인사(人事) 도리 못할 바라
(다음호에 계속)

明倫歌(명륜가)

오륜삼강(五倫三綱) 총론가(總論歌) 3

내몸 점점 영귀(榮貴)하면
부모에게 현달(顯達)하고
내몸 만약 천히 되면
부모에게 불효로다
부모 훈계하신 말씀
잊지 말고 본을 받고
부모 꾸중 하신 말씀
잊지 말고 경계하여
일언일사(一言一事)
행할 때에
굽이굽이 생각하라
금석(金石)같은 부모 말씀
내 몸에는 은혜로다
내 부모가 아니시면
그 뉘라서, 날 위할까

훈계하신 그 말씀이
내 몸에는 약이로다
병이 깊은 내 몸에다
약을 주신 부모 은덕
하늘같고 바다같이
높고높고 깊고깊어
어찌한들 갚을손가
느낌끝에 눈물이라
우리 부모 아니시면
내몸 어찌 생겼으며
부모 은혜 아니시면
내몸 어찌 살았으랴
훈계 교육하옵실제
일심정력(一心精力)
깊으셨다

세상 천하 이치 중에
그른 부모 없느니라
도적같이 무도(無道)한들
교사시즉(教子時則)
선의(善意)로다
그 이치로 미뤄보면
그른 부모 어디 있나
천지 이치 자연으로
부모 자식 중한 천륜(天倫)
부모 자식 사이에는
아낄 것이 없느니라
물건보다 중한 것은
내몸밖에 또 있는가
생육(生育)하신 부모 은혜
물건에다 비할소나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組版 印刷 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五大特徵

1. 韓半島 100여년의 歷史와 全國 族譜 300여권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 族譜界의 元祖
2. 서울시 龍谷區 龍谷洞에 實業地로 出版界에 大추진
3. 編輯, 裝幀, 出版, 印刷, 製冊을 一貫 過程을 同 場所에서 掌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 發見의, 30餘年間 勤精한 技術者 多數確保
5. 1,000餘種以上에 達한 倉庫의 資料提供으로 1997년 1월 起 廉價 便宜提供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의 便宜를 爲하여 本報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의 收單, 裝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3, 256-1263
FAX (042) 253-9891 白毫 253-989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3월호 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恩母曲

이글은 按廉使公派 參奉公 諱公彦의 셋째 아드님 軍資監正公諱勳의 15代孫 昌植(大德研究團地 理學博士) 夫人 韓山李順馥 女史가 媿母任을 여의고 三虞日에 올린 글이다.

어머님은 가셨습니다.
산 넘어 물 건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子息들을 뒤로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터벅터벅 옮겨 가셨습니다. 世上의 미련은 다 버리고 가셨지만 子息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44년전 그 날 하늘같이 믿던 아버님이 어린 자식들과 父母任까지 맡기고 훌쩍 떠나시던 그 날 산도 울고 땅도 울던 그 날 하늘과 땅이 陷沒하는 그 까만 切望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苦痛과 아픔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어린 자식들을 잠재우고 남 몰래 흘리신 눈물이 그 얼마며 試練과 逆境가 서러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하나 도와 줄 사람 없는 寂寞江山인 當身의 處地를 서러워하며 흘린 눈물이 그 얼마이겠습니까?
철없는 子息들의 妬情과 不平을 말없이 받으시며 마음으로 흘리던 눈물이 그 얼마이겠습니까? 어머니 없이

는 못 살 것같은 子息들이 자라 제 짝을 찾아 제갈 길로 가고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을 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勘當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눈물과 苦痛을 하늘이 알겠습니까, 땅이 알겠습니까, 子息들인들 알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子息이란 남의 얘기를 듣기 싫으셔서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 보시려고 없는 登錄金을 마련하시고자 出嫁한 따님 大門앞을 수없이 서성이며 애태우시던 일이며, 마음을 다쳐먹고 들어갔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던 그 心情을 누가 알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정말 어쩔 수가 없이 出嫁한 따님의 집에 여러 子息을 맡기고 딸이지만 너무나 未安했던 그 心情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어머니의 새까맣게 말라버린 젖가슴과 꺾게 마디진 손마디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한 平生 그 自體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몸의 津液을 다 뽑아 子息들에게 주었고, 맘과 눈물과 生命까지도 子息을 위해 바쳤습니다. 어머니는 眞情 눈물겨운 韓國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가장 強함과 가장 弱함을 함께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苦難과 逆境과 가난에는 그 누구보다도 強하셨고 子息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弱하셨습니다. 子息들에게는 늘 當身의 마음을 비우셨고 讓步하셨습니다. 當身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子息들이 알면 마음 傷할까봐 일체 내색도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 없이 어렵게 자란 자식들이 惻隱하여 마음이 어린듯 가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層層侍下의 어려움도 자식들을 잘 길러야겠다는 一念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며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곱고 孝誠이 至極해서서 媿父母任을 至極精誠으로 모셨으니 當身은 우리의 龜鑑이 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국을 끓였을 때 너무 많이 끓었다고 나무라시며 '여편네가 알뜰해하지 헤프면 男便등골 빼먹는 거여'하고 걱정스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그 말씀이 섭섭하게 들렸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眞正한 敎訓이고 참 眞理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말씀까지도 그립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곱고 바른 성품만큼이나 그 모습도 참으로 端雅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孤高한 鶴같기도 하고 한 송이의 청초한 초롱꽃 같기도 하셨습니다. 그 여린 몸매, 어디에 그토록 뜨거운 마음과 強烈한 사랑과 힘이 있으셨는지 강한 意志와 큰 사랑으로 八男妹를 참으로 잘 기르셨으니 어머니는 거룩한 犧牲의 받침돌이었으며 이 家門의 榮光이 되십니다. 當身의 生命과 젊음을 다 바쳐 子息들을 기른 어머니, 老後는 참으로 孤獨하셨습니다. 삶의 樂이라곤 子息들 얼굴보는 것이고 所願은 오직 子息 잘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所願 하나 들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평계로 어머니를 섭섭하게 해 드렸으니, 어머니! 자식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일을 도리켜 보니 後悔뿐이요, 아픔 뿐입니

다. 어머니께 孝道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마음을 찢으며 숨죽여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첩첩 山中에 쓸쓸히 홀로 두고 돌아서 올 때에 山川草木도 울고 우리도 울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보고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봐도 對答을 들을 수도 없고, 때 늦은 孝道를 하고자 해도 받으실 어머니가 아니 계시니 그것이 정녕 서럽습니다. 지난 날의 不孝가 가슴을 때리고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어머니! 이 不孝를 容恕하소서 이제야 어리석은 저희를 깨닫고 어머니의 敎訓과 訓戒를 마음 판에 새기고 뜨거운 精誠과 끈은 마음으로 한 平生을 사신 어머니를 본받아 이 世上을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또 늘 子息들이 友愛있이 살기를 바라시던 어머니의 뜻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어머니의 뜻을 믿고자 하오니 어머니, 이제 子息에 대한 念慮도 미련도 섭섭함도 다 버리고 便히 가소서!
눈물도 없고 苦痛도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 便히 가소서. 언젠가 어머니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어머니를 다시 뵈올 때까지 便히 쉬소서.
어머님의 넷째 며느리 不孝 李順馥 드림

한 떨기의 매화처럼



김창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문사들이야 오 청에 의해서 수필이나 칼럼을 쓰는 경우가 많다. 몸담은 직업이 글과 밀접한 관계도 아니요, 또한 그 분야에 전공도 아닌 사람으로서는 요청보다는 수시로 떠오르는 글발을 수상이나 잠문 형식으로 원고지에 옮겨 보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끙끙대고 고민하다가 훌쩍 남창을 열고 한숨을 크게 쉬기도 한다. 지구 온난화의 현상으로 기온은 금석(今昔)을 달리하지만 이월의 산야는 아직도 추위에 몸을 움추린다. "언 가지 녹지 않아 꺾어질 듯 보이는데, 뿌리쪽 어디엔가 봄기운 비치네"(萬木凍折, 孤根暖獨照) 이는 옛시인의 글귀다. 꽃샘추위에 현란한 눈발이 매화(梅花) 꽃망울을 시샘하지만 이미 터지기 시작한 그는 소리없이 웃는 것인지 추위에 몸이 시려 떨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내가 거처하는 작은 집 사랑 앞에는 한 떨기의 매화가 봄을 기다리고 있다. 아침이면 갖가지 텃새들이 가지에 매달려 봄을 찬미하고 사랑을 속삭인다. 매화는 얼음처럼 맑고 엽결한 꽃의 수장이다. 사람들은 방기옥골(氷肌玉骨) 또는 설중한매(雪中寒梅)로 불렀다. 빙설 가운데 의연히 서서 모든 수목을 앞도하는 본성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를 뿜어낸다. 고금동서에 전하기를 매화는 맑고 싸늘하고 나는 듯 마는듯 유덕한 암향이 시인묵객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왔고 글과 그림의

주인으로 수없이 등장한다. 당(唐) 나라의 자연주의 시인 맹호연(孟浩然)은 그것에 매혹되어 임금 섬기기를 게을리 했다가 지탄을 받기도 했으니 말이다. 꽃이 지니고 있는 청빈과 절개의 특성은 다듬은 흔적없이 제대로 영성하게 말려 올라간 성긴가지 사이에서 잎보다 먼저 띄엄띄엄 피운 것이 달빛 속의 창살에 비쳐오는 긴장감 그대로 한쪽의 그림이요, 지조 있는 선비의 그림자다. 그리고 고상한 위엄은 범속한 화류부와 동조를 바라지 않고 초연한 의지로 자리를 지키니 뜻 있는 사람들은 그를 고현일사(高賢逸士)로 일컬었다. "매화 옛동경에 봄철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에 피임죽도 하다가는, 춘설이 난분분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꿈많은 문학소녀들이 애송하는 고시조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해안의 양지바른 땅과 매서운 추위가 쓸고 간 구석진 산 자락에는 한 달이나 앞당겨 매화가 핀다는 소식이 영상 매체를 타고 흐른다.
한두차례의 꽃샘 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조롭게 복상하는 바람을 타고 소리없이 내리는 봄비 속에 내가 지켜보는 작은 꽃망울도 떨지 않은 그 날에 '열리고 말 것이니!
응달계곡의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봄은 성큼성큼 다가선다. 한(漢)나라 원제의 공녀로 화공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원제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희세의 미인 왕소군(王昭君)이

북망 기마민족과 화친정책의 희생자로서 그 두목 선우(單于)의 첩이 되어 사막을 건너면서 아름다운 얼굴을 눈물로 적시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오랑캐 땅에 화초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봄은 사계절의 으뜸이요, 만물이 생동하며 일 년의 먹을거리를 씨부리는 아름다운 때이지만 왕소군의 읊음처럼 불사춘의 봄도 있으니 말이다. 날씨가 풀리자 거리마다 사람의 물결은 넘치고 햇살은 화사하지만 나라를 덮고 있는 불경기의 물결 속에 일터를 잃은 힘없는 군상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자해 행위로 이 봄은 얼룩진 다. 어느 시인은 매화의 아멸찬 의지를 좌절한 사람에 비유하여 충고한 바 있다. 소장영고(消長榮枯)의 돌아감은 우주의 철칙이니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헤메이는 약자라도 헤여날 구멍은 있게 마련이다. 듣기에도 섬뜩한 실업대란의 긴박함을 언론 매체들은 위기의식의 조장보다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인고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더 소중한 것 같다. 누구라고 할것없이 너와 나에게 부딪친, 넘어야할 산이요, 건너야할 강이 아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만 매서운 겨울이 봄을 품고 있듯이 차가운 바람, 휘몰아치는 눈발에도 무릎꿇지 않는 매화의 강인성을 마음속에 되새겨 스스로의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할 때이다. 반평생 몸담아 온 공직생활이 나라의 명에 의해 자리를 내놓을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돌이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을 지금까지 거두어 주신 나라의 은혜에 고마울 뿐이다. 이제 굴레 벗은 말이 되어 산야를 달리고 싶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도 흥가분한 심정은 비길데 없다.

1998. 3 경칩 일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郡事公派 鎮默 賢宗의 善行紀



여기 소개하는 종친은 전북 정읍군 칠보면 원촌리에서 出生한 충렬공 21代孫 군사공 17代孫이며 낙향조 察訪公 諱堪의 9代孫 榮德 號松岩의 장남 鎮默 賢宗이다.
1974년에 사회의 물결을 따라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고향을 떠나 젊은 패기를 갖고 전주 시내로 나와 장사를 시작 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실패를 하고 대전으로 올라와 셋방살이를 하며 품팔이 생활로 1년 여 동안 피나는 고생을 해 오던 중 자그마한 고철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막 자리가 잡힐 즈음 동생인 鍾默이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자기 사업자금도 부족한터라 여기 저기 친지들을 방문 돈을 빌리고 가지고 있는 얼마를 보태어 동생에게 전하며 앞으로 정신차려 잘해 보자며 父母님 생전에 동기간에 우에하지 못하면 불효가 되지 않겠느냐며 동생을 위로하였다. 또한 막내 동생 王默이 혼기가 되어 결혼비용 일체와 생활자금으로 3천여 만 원을 주선해 주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세업은 6두락도 막내 王默에게 물려 주었다.
鄉家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매월 용체로 30여 만 원씩을 보내드리고 있다 한다. 이렇듯 부모님께 효는 물론 형제 우애를 敦篤히 지켜오며 先祖爲先事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 지난번 察訪公 할아버지 묘역정화사업에도 巨金을 獻納하여 위선사에 일익이 되었다 한다. 이에 동생 종묵과 왕묵은 형의 讚辭를 써서 대중회에 보내왔고, 또한 안동김씨 군사공파 칠방공종회 회장 彰會氏는 98총회 날 碧海 鎮默 賢宗께 感謝牌를 授與했다.